

음식과 수행

약이 되는 밥

유명 브랜드 쌀보다 갓 도정 쌀이 최고

쌀 도정 후 7일이 지나면 산패가 시작된다

도정 후 7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기 시작하고 7일이 지나면 각종 영양소가 파괴되는 산패가 시작된다

따라서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도정 후 15일이 지나면 산패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된다

곡류가 산패가 되면서 인체에 해로운 과산화지질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과산화지질은 일종의 녹슨 기름때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과산화지질이 혈관을 따라 이동해서 동맥 경화,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쌀이 산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의 쌀이라고 해도 도정한 지 오래된 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갓 도정한 쌀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가? 요즘은 인터넷에서 가정용 도정기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대략 150만원 정도)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대형마트에서 바로 도정한 쌀을 구입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도정된 쌀을 구입한 후에 밀폐된 상태로 냉장보관을 해야 더 이상 산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미뿐만 아니라 오래된 현미나 잡곡 모두 위의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도정한 지 5일 이내의 쌀이나 보리, 현미 등을 구입하여 먹게 되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도정일자가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쌀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어떻게 하면 밥에서 냄새나는 것을 없앨 수 있을까? 쌀을 씻을 때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씻어선 안 되고 벽벽 문질러서 재빨리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씻으면 쌀의 전분이 흘러나와 밥알이 제 모습을 잃고 찰기가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씻은 뒤에는 체에 받쳐 쌀뜨물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쌀 표면의 산패한 지방산을 씻어낸 물을 제거해야 밥에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온밥통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밥통 내솥의 청결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쌀을 씻을 때 결정되니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쌀이 어느 순간부터 찬밥신세가 되어 슬프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서구화된 식습관을 잠시 내려두고 쌀밥 먹는 습관을 들여보아야 할까?\*

이승우 기자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4회>

일곱째 천사만큼 희생적인 삶을 산 자를 찾아볼 수 없다

1절: 다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

- 1) 동정녀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 2) 죽음의 문제
- 3) 불의 성신으로 변화된 심령과 육신
- 4-1) 희생적인 삶을 일관하는 일곱째 천사
- 4-2) 희생적인 삶을 일관하는 일곱째 천사
- 5) 신미생의 목숨을 빼앗는 6.25전쟁

4-2) 희생적인 삶을 일관하는 일곱째 천사

일곱째 천사의 집에서 짓는 농사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가정의 일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 주는 등 언젠가 먼저 남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많고고로 될 수 있는 대로 가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려고 추수가 끝나면 아버지 몰래 벼가 마니를 감추시는 등 살림 걱정에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농사일을 비롯한 자녀 부양과 가사 전반에 걸친 일에 몹시 고생을 하심으로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 품앗이

처음에는 무슨 초등학교생이 어른을 대신하여 모를 심겠다고 강하게 거부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 번만 시켜봐 주세요"라고 자꾸 조르니 마지못해 해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대신 모를 심다 보면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부모님 대신 모 품앗이를 자청한 효자였다

같이 일하는 어른들이 "야! 희성이, 모 참 잘 낸다."하며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두어 포기 꽃고서 아픈 허리를 세우고 쉬면서 점점 모 심는 면적을 넓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논바다 중에는 물렁물렁한 곳도 있지만 어른들조차 손가락이 아파서 절절대는 개흙 같은 논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잘 꽃아지지 않는 모를 내려고 하면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손끝이 땀에 젖어 모를 내려니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파도 꼭 참고 어른들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모를 냈던 것입니다

어서는 온몸이 춥고 떨려오는 말라리아에 걸려 밤새도록 앓고 밤을 지새우다가 이튿날이면 또 아픈 몸을 이끌고 모를 내려 간 적도 있었습니다

고학을 하면서도 동창생의 학비를 돕

일곱째 천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가서 대학교를 다닐 때, 자취생활을 하였으며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는 성냥과 비누를 들고 집집마다 팔러 다녔습니다

한번은 물건을 들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발소에는 비누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발소에 가 보라."고 하였습

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갔더니 일곱째 천사가 고학하는 학생임을 아시고 비누를 팔아주는데 이용사협회의 간부로 있는 사람의 주선으로 서울 시내 이발소마다 비누를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키우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성품이 끊임없이 우러나게끔 유도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가난한 시골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대학교에 다닐 때 6.25전쟁이 일어나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압송되어 출살집행까지 당하여 구렁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박한수

'살아 영생'은 하나 속에 있다

생명이 되는 영이 먼저 죽은 다음 몸이 죽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쿠팡귀부러 쾀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선전에는 잘 속아 넘어간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속의 생명이 죽는 현상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잠언 4:23)'는 말씀대로 생명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죽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無)로 돌아갈진대,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살아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도 내세 같은 것은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나? 죽은 자를 위한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현재 살아 가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 있겠다

강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종종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내세를 믿지 않아도 선행과 희생적인 봉사 활동을 하는 자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의 발로(發露)다

한편 이긴자는 100% 희생으로 이루어진 의인이며 그 자체가 선한 양심의 무한발로(無限發露)이기에 그 몸에서 이슬성신이 무한정 나온다

죽은 사람의 내세가 곧 현세

승리제단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후손들의 핏속에 있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피 작용이 마음 작용이요, 마음이 곧 영이므로 피가 곧 영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는 썩어서 흙이 되지만 그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 속에도 있고고로 죽은 사람의 영혼의 내세가 바로 현세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자식 속에 부모의 피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의 피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식 속에 있는 피가 그 부모의 피요, 그 부모의 피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피요, 할아버지 할머니 피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는 바로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원시반본(原始反本)된 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실상원이 되는 현재의 지구(地球)가 지상낙원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의인의 몸에서는 오라(aura)와 같

은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 세상만 물을 썩지 않고 늘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영생 주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지만 우리의 무지가 거부함

지금으로부터 36년전 '살아 영생'이라는 참진리가 출현하자, 기존의 '사후천국'이라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기독교를 가진 대영교회의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 영생'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증을 회피하고 '살아 영생'을 정취한 이긴자를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혼신의 열을 올렸던 것이다

죄악세상인고로 당연히 마귀세상에서 군림하는 죄인들이 의인 되신 구세주를 몰라보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로 치부할 수 있겠다

특히 70인의 샅꾼 목자들이 인류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영생하게 하는 이슬성신 내리는 구세주를 포함하여 기어이 교도소에 가두었다. 이슬을 내리는 구세주는 전지전능을 회복한 이긴자 하나님이기에, 진짜 구세주가 이 땅에 출현한 다음부터는 지구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에 의해서 생존하는 것이다

이긴자의 '살아 영생'은 빈부차별이 없는 사회변혁을 가져옴

올 초에 발행된 2030 미래 예측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제4의 물결이 온다'는 책에 언급된 "미래기술, 미래산업은 결국 '지능, 자율, 영생'이라는 3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소비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지능, 자율, 영생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맞추어야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다(위 책 335쪽)"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천만다행히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돈과 권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 영생'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이긴자 구세주에 의해서 열려 있으니, 오늘날 이긴자가 출현한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살아 영생'이 빈자나 부자나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박태선 기자